솔직히 마음 드러낼 용기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㉚ ‘경도를 기다리며’(2025)



‘경도를 기다리며’는 의지와 무관한 이별 후에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긴 채 힘든 시간을 견뎌온 경도와 지우의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사진 출처=JTBC 공식 홈페이지

한마을에 살던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도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음~~ 모르는 척~했더래요”라는 가사처럼 마음을 숨겼기 때문이다. 그 모르는 척이 얼마나 굳건한지 갑순이는 시집간 날 첫날밤에 한없이 울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고, 화가 나서 장가를 간 갑돌이도 장가간 날 첫날밤에 달 보고 울면서도 겉으로는 고까짓 것 했다. 이쯤 되면 그런 생각까지 든다. 이 둘은 과연 ‘서로’ 사랑했을까?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는 자림 어패럴의 사위와 여배우와의 불륜 의혹 기사를 작성하는 일간지 연예부 차장 이경도(배우 박서준)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도는 본인이 작성한 기사를 직접 업로드 하지 못하고 아침부터 밥집에 앉아 먹지도 않을 소주병을 앞에 두고 있다. 경도의 마음을 후비고 있는 사람은 불륜을 저지른 여배우도, 여배우의 내연남도 아닌 내연남의 와이프인 자림 어패럴의 차녀 서지우(배우 원지안)다.

기사가 나가고 나서 얼굴을 마주한 경도와 지우. 10년 만에 만났다는 둘은 깊은 사연이 있는 듯 날카로운 대화를 주고받는다. “고도는 기다려도 안 오지만 경도는 온다며?”라는 원망 서린 말을 던진 지우는 오래 끌던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기사 덕분에 쉽게 끝나게 될 것 같다며 자신의 이혼 소식은 꼭 경도가 쓰라고 한다. 조롱하는 듯한 지우의 말에 대한 경도의 최후의 일격. “장례식 때나 보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서른여덟 살 경도와 지우는 지금은 원수 같지만, 스무 살 시절 연극 동아리를 함께하면서 사귀던 사이다. 친구의 학교를 찾아왔다가 경도를 알게 된 지우는 어찌어찌 남의 학교 연극 동아리 선배 셋과 어울리게 되고, 그렇게 다섯 명은 소주병을 끼고 살며 신나게 청춘을 누렸다. 평범한 대학생인 줄 알았던 지우가 알고 봤더니 재벌 집 딸이라는 사실도 그들에게는 돈 걱정 없이 워크숍을 가게 해줄 물주가 생긴 것일 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연인 사이에서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우가 경도에게 사준 티셔츠 하나가 경도 어머니가 한 달 아르바이트를 해야 벌 수 있는 가격이라는 자각이 생기면서 둘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고, 결국 유학생이던 지우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둘의 첫 번째 사랑은 끝이 난다.

8년 후 연극 동아리 선배 세영(배우 이주영)과 우식(배우 강기둥)의 결혼식을 보러 한국에 들어온 지우. 결혼식장에서 지우를 다시 만난 경도는 말없이 떠나버린 지우를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지만, 애틋했던 예전의 감정이 되살아난 둘은 20대 후반다운 어른의 사랑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경도의 아버지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생긴다. 지우까지 살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경도. 이때 둘의 연애를 묵묵히 지켜만 보던 지우의 언니 지연(배우 이엘)이 지우에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한다. 지우가 서 회장의 친딸이 아니라, 어머니가 외도해서 낳은 딸이라는 사실이었다. 지금까지 서 회장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다정한 아버지로서 지우를 대했지만, 지우의 어머니는 스스로의 죄책감 때문에 지우에게만은 유난히 차가웠다.

지연이 지우에게 이러한 ‘출생의 비밀’을 밝힌 건, 둘 사이가 계속되면 평생 지우가 어머니에게 받아오던 모멸의 눈빛을 경도가 받게 되리라는 일종의 경고였다. 그러니 다 잊고 미국으로 가서 자림 어패럴의 빛나는 서지우가 되라는 것. 한마디로 사랑놀이는 이 정도로 하고 사업에 뛰어들어 재벌가로서의 삶을 살라는 뜻이다. 지우는 세상이 무너진 듯 통곡을 하며 경도와의 추억이 담긴 500원짜리 동전을 경도의 집에 남겨두고, 두 번째 이별을 한다.

또다시 지우가 말없이 사라지자 경도의 삶은 무너진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술에 의지하던 경도는 병원에 입원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힘겹게 인생의 바닥을 치고 올라온 경도는 술을 좋아하던 지우를 잊듯 그 후로는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살았다.

18년 동안 세 번의 사랑 · 이별 이야기
사랑 가른 건 배경 등 주변 상황 문제
상대 이해 구하지 않은 탓이 가장 커
사람 간 오랜 위로 · 응원 담은 드라마
시청자에 경도처럼 지켜줄 존재 물어



‘경도를 기다리며’ 메인 포스터.
사진 출처=JTBC 공식 홈페이지

다시 10년이 흐른 어느 날, 이번에는 남편의 불륜 기사를 쓴 기자와 그 남편과 이혼을 앞둔 아내의 입장으로 만난 경도와 지우. 서로의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공격과 조롱 같은 대화도 잠시, 영국으로 떠나려는 지우를 공항으로 달려간 경도가 붙잡으며 두 사람의 세 번째 사랑이 시작된다.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경도와 30대의 사랑을 하면서, 서 회장의 유지에 따라 자림 어패럴의 상무가 되어 경영인의 면모를 드러내는 지우.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지우의 이혼을 둘러싸고, 경도와 오랜 내연 관계였던 지우가 남편과의 이혼을 설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휘말리면서 둘의 사랑은 또다시 위기를 맞는다. 사랑뿐만 아니라 자림 어패럴의 상무 자리까지 걸린 문제인 셈. 경도는 혼자서 그 모든 파도를 막으려고 한다. 바로 둘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열애설 사실무근 기사.

두 번째 이별을 할 때 미국으로 떠나던 지우는 서 회장에게 경도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서 회장은 김 기사(배우 최덕문)를 통해 늘 경도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경도의 아버지가 크게 다쳤을 때, 세탁소를 열 수 있었던 것도 서 회장이 남몰래 지원을 해준 덕분. 서 회장이 세상을 떠나자 매년 서 회장의 기일에 자림 어패럴의 정장을 구입하며 경도 나름의 감사와 애도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기사는 경도 스스로 세 번째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었고, 지우에게 ‘불륜녀’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게 하는 것이 지우를 향한 경도의 더 큰 사랑이었다. 그렇게 둘은 세 번째 이별을 한다.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는 스무 살부터 서른여덟까지 18년 동안 세 번의 사랑과 세 번의 이별을 하는 경도와 지우의 이야기다. 사실 이들의 이별은 본인들의 문제보다는 주변의 탓이 더 커 보인다. 서로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재벌가와 보통 사람의 만남에서 오는 갈등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꼼꼼히 살펴보면 두 사람 이별의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사정을 상대에게 말하여 이해를 구하지 않는 데에서 발생한다.

이별할 때마다 지우는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경도 곁에서 사라진다. 그러면서도 경도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경도와 선배들이 공연하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매년 몰래 보러 온다.

경도는 더하다. 첫 번째 이별의 계기가 되었던 지우가 사준 티셔츠를 아직도 가지고 있고 연극 공연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서지우는 안 온다”는 대사를 해서 연극을 망친 적도 있다. 서 회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장례식장에 가서 그저 먼발치에서 지우를 보고만 온다.

자신들의 의지로 헤어진 것이 아니어서 마음은 늘 상대에게 가 있지만, 애써 마음을 숨기며 드러내지 않는 두 사람. 안 그런 척하고 모르는 척하는 갑돌이와 갑순이랑 다를 게 없다. 그러면서도 내내 ‘서로를 기다리며’ 힘든 날들을 보내온 경도와 지우다.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기 위해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찾아 스페인까지 날아간 두 사람. 디자이너 벨라 진(배우 임상아)은 스무 살에 만나서 지금까지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에 흥미로워하며 경도에게 묻는다. “중간에 다른 여자 좋아했던 적은요?” 경도의 대답은 “스물여덟의 서지우요”였다.

‘경도를 기다리며’를 집필한 유영아 작가는 자신의 드라마에 “사람과 사람의 오랜 응원과 위로를 담았다”고 밝히면서 시청자들에게 “당신에게도 경도처럼, 내가 주저앉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누군가, 나를 지켜내고 싶어 하는 무엇인 존재가 있는지” 묻는다.

당장 떠오르는 얼굴은 부모님이다. 나이 든 자식 걱정에 여전히 노심초사하는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버린 배우자, 가족들. 무엇보다도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굽어살피시는 부처님과 보살님들도 빼놓을 수 없으리라.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고마운 이들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알면서도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경도와 지우처럼 ‘모르는 척’하거나 ‘안 그런 척’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인색하지는 않은지. 때로 마음을 드러내는 일에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용기라면 주저 없이 내야 하지 않을까.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